

## Australian and Korean perspectives on lifestyle and culture: sample reading and responding tasks

### Task 1

다음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호 문화교류' 라는 제목의 글을 교민신문에 보내려고 합니다. 250-300 단어 내외의 한국어로 쓰세요.

Based on the following text, write an article entitled 'Cultural exchange in Korea and Australia' for a Korean community paper. Write 250-300 words in Korean.

### Text

4월 22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메인 컨서트홀에서 열린 앙드레 김 패션 쇼 행사는 총객석 2679석의 반이 채 못 되는 약 1000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으는데 그쳤다. 그것도 현지 교포와 한인 유학생들이 거의 전부였다. 관람자들 중 호주인 (비 한국인)은 약 50명 정도로 손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해외에서 벌이는 이만한 행사에 드는 외화는 상당한 액수일 것이다. 이 쇼가 교포 시장을 상대로 한 흥행이라면 이익을 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했으면 주최자들이 감당하면 된다. 그러나 국제친선 또는 문화교류 행사, 한국 패션의 해외 진출 운운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번 행사는 국가 홍보와 문화 수출의 임무를 띠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국영 기업인 한국관광공사와 시드니 현지에 지사를 둔 몇 개 대기업들이 여러 모로 지원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호간 문화교류 등 멋진 이름으로 열리는 국가 전략 차원의 행사가 거의 매번 교포가 아니라면 장내는 텅텅 빌 수밖에 없는 실상을 덮어두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왜 그렇게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달라질까 생각해 봐야 한다.

과거 한국으로부터 수십 명으로 구성된 풍물패, 합창단, 전통 무용단 등이 호주를 방문 공연을 했어도 큰 신문과 텔레비전에는 한 토막 짧은 뉴스로도 보도되지 않는 게 보통이었다. 행사를 알선한 시드니의 한인 공연 대행업체의 홍보 활동은 교포 신문을 향하여 광고와 기사를 집중적으로 내는 게 고작이었다. 한국은 대외 국가 홍보를 위하여 해외홍보원, 해외공보관 등을 주요 해외 지역에 두고 있지만, 별로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소속 공관의 일부이면서 장식적 역할이나 하는 편이다.

나라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다면 개별적으로 돈 들여 하는 어떤 문화 행사나 인위적인 국가 홍보 행사가 좋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을 예로 들어

보자. 지독한 독재와 인권 탄압 국가로 낙인이 찍혀 있는 한, 북한에서 나와 하는 연설단이 아무리 공연을 훌륭하게 해도 큰 감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일본은 이 점에서 좋은 사례이다. 일부 2차대전을 경험한 호주인들의 대일 감정은 나쁜 편이지만, 젊은 층 대부분은 일본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일본이 호주에서 선 보인 '스모' (일본식 씨름) 경기가 호주 매체에 크게 보도되고 성황을 이룬 것은 우리의 경우와 크게 비교된다.

대 호주 언론 홍보를 맡은 호주 PR 대행사의 의뢰로 행사 당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기사화는 되었지만 그 보도는 준비 과정 이야기와 주로 과거의 행사 실적을 중심으로 디자이너로서의 김씨를 소개했을 뿐, 작품과 시드니 공연의 예술적 가치를 음미하는 평론은 없었다.

**In your answer you will be assessed on how well you:**

- exchange information in response to opinions, ideas and information
- compose a well-structured argument supported by textual reference
- convey information, opinions and ideas accurately and appropriately